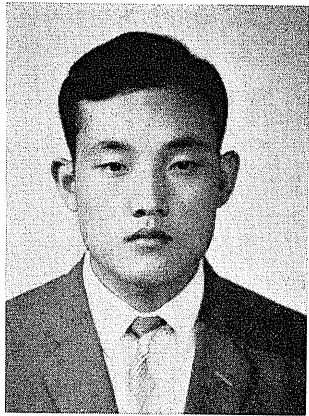




정 민호 형제 선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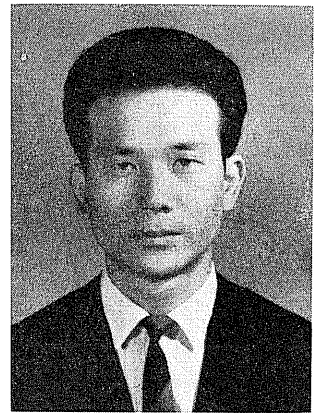
부산지부 출신의 정 민호 형제가 지난 10월 8일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아 영등포 지부에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그는 「이제 교회사업에 열심일 수 없는 동생만이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서 알고 있는 것을 전하며 더욱 신앙적으로 자라고 싶어서 선교사를 희망했다고 선교사가 된 동기를 들려주었다.



성북지부 야유회

10월 24일에 상향회를 시작한 성북지부는 지부회원의 결속을 다짐하는 야유회를 10월 3일 동구농에서 가졌다. 지부의 거의 모든 회원이 참석했던 동 야유회에는 3대의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모임이었다고.

지부로 승격된지 꽤 오랜 시일을 보낸 성북지부의 젊은 이들이 그들의 영적인 발전과 재능의 개발을 위해 서둘렀던 상호 향상회의 청남 회장에는 장 원서 형제, 청녀 회장에는 민 영난 자매가 각각 임명되었다. “즐겁고, 유익하게”란 주제를 갖고있는 성북지부의 상향회는 착실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조 태호 형제 선교사로

동대문지부의 상향회 회장이었던 조 태호 형제가 지난 9월 30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말없이 실천하는 믿음으로해서 동대문 지부 회원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는 「자기의 봉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라면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친척 모두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이라면서 복음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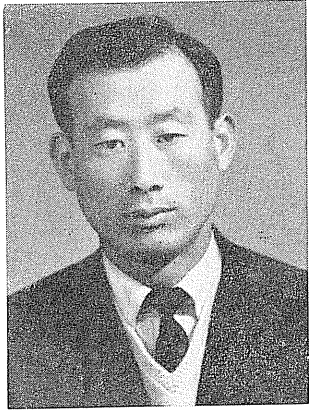
내 외 소식



상호 부조회 주최 바자회 성황

한국 선교부 제4회(남부지방부 제1회) 바자회가 지난 10월 9일과 12일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있었다. 동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남부지방부 상호 부조회가 참례한 남부지방부 바자회에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회원이 회장인 동구지부에 모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중앙

지방부 예하 모든 지역과 지부가 참례한 중앙지방부 바자회에는 대구지부와 용산지부의 창조출연으로 400여명의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병자에게 간호를,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모임은 준비기간으로 되어있는 1년동안의 자매들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는 모임이기도 하다.



부산 지부장 지지

그간 남부 지방부장이 겸임해오던 부산지부장에 귀환 선교사 장 병훈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10월 27일 부산지부 지부대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지지된 장 병훈 형제는 「주님의 사업이기에 서슴없이 받아드린다」고 했었다. 장 형제의 전임 배영천지부장은 지방부 탄생 이전부터 2년 6개월을 봉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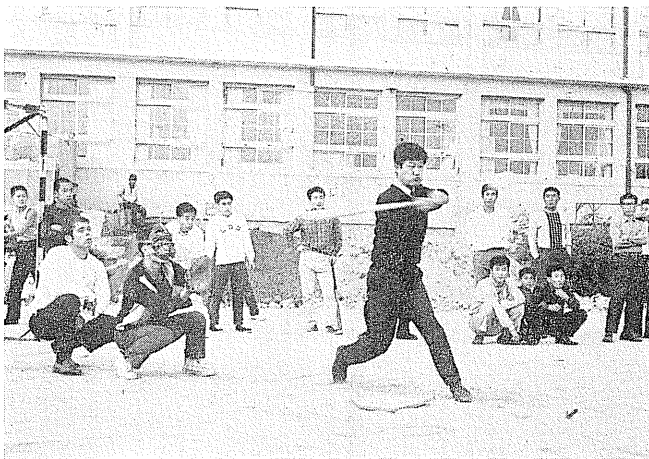
청운 지부장 임명

청운 지부장으로 김 상호 형제가 지난 11월 3일 임명되었다. 중앙지방부 건축담당 평의원과 청운지부장단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의유내장의 실천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전임 이영환 형제는 독일 유학을 위해 부득이 사임하게 되었었는데 그는 12월 초순에 이한 예정이다. 청운 지부에서는 11월 26일 송별회를 가졌다.



서 현보 박사 초청 강연 성황

로버트 에이취. 스로버(한국명 서 현보) 박사 초청 강연회가 지난 11월 3일 성동구 동화 예식장에서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 고학생 원호회 초청의 동 강연회에서 말일성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장인 서 현보 박사는 「청소년의 방향」에 대해서 강연하는 가운데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할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건강을 기르라」고 말씀하면서 「어떠한 것이라도 꾸준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의 근면을 강조했었다. 400여 남녀 중고등 학생이 모인 이날의 강연은 강연도중에 세차례의 박수가 터지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소프트 볼 예선전

중앙지방부 소프트 볼 예선전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청운중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대운동회를 위한 예선전인 동 경기에서 A팀의 청운과 성북은 삼청과 동부를 각각 눌러 B팀인 녹번, 서부의 승자인 서부와 결승을 다루게 되었다. 사진: 3회초 청운의 김 정웅 형제의 공격. 이 경기에서 청운은 삼청에 8대2로 승리를 거뒀다.

최 육환 형제 치과 개업

삼청지부 지부장 제 1 보좌 최 육환 형제가 치과를 개업했다. 이름은 자작이라고 했는데 수소문한 결과 부인인 서 인식 자매와 자기의 가운데 이름을따서 인육치과라 했다고. 2남1녀의 아버지에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그의 치과는 삼청동 입구 화동 파출소에서 보이는 곳에 아크릴 간판을 달았다. 회원에게 특별히 봉사하고 있는 그의 전화는 72-0137.





이 용호 형제 결혼

부산지부 출신의 이 용호 형제와 김 영희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 현보 선교부장 주례로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결혼하기 위해서 김 영희 자매를 서부지부로 인도했었던 그는 「회원이 되기를 무척 바랐으며 이에 신부도 기꺼이 동의해서 결혼식을 칠레 후로 미루어 왔었다」고 하는데 이 형제는 곧 태권도 교관의 일원으로 월남으로 떠나게 된다.

알 림

성도의 벗에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편의를 드리고져 12월 한달에 한하여 1년 구독료를 400원으로 봉사합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선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각 지부 성도의 벗 담당자
성도의 벗 편집실

기간 : 1968년 12월 1일~31일
(31일 우체국 일부인 유효)

선교사 여러분에게

특별히 성도의 벗을 아껴 주시는 선교사 여러분에게 선교의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권을 장기 구독 하시면 5권을 보내 드리고 있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벗



남 영진 형제 결혼

동대문 지부장 남 영진 형제와 청운지부의 홍 명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영의 세계에서부터 테이트를 했었던 것 같다」고 했던 남 형제는 시종 신부를 에스코트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를 본 어느 자매 왈 「물론의 남편감으로서 손색이 없겠다」고 한다. 그들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신방을 차렸다.

동구, 부산지부 합동 피크닉

부산지부와 동구지부는 10월 24일 상호향상회 주최의 피크닉을 동래 범어사에서 가졌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기 시작한 갑작스러운 비로 약 70명의 회원들은 매아닌 물작난을 했으나 날이 개어져 준비된 하루를 재미있게 보냈다고.

신촌지부 피크닉

10월 9일 신촌지부 회원들은 오전의 부슬비를 무릅쓰고 원능으로 피크닉을 갔었다. 기차를 이용해서 출발했었던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해서부터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즐겼다는 소식을 들은 결석자들은 무척이나 후회를 했었다고.

벤슨 사도님 방한 사진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셨던 벤슨 사도님의 여러 모습을 담은 성도 여러분의 사진 작품을 보내주시면 수록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민 영난 자매 졸업발표

서울 음악대학의 졸업반인 민 영난 자매의 졸업작품 발표회가 지난 10월 2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 홀에서 있었다. 선교부장등 많은 성도들의 갈채 속에 10여년간 연마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그곳에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적일 수가 없던 자매의 정진에 감탄을 했다고.

계보의 집 소개

은 세상 사람의 계보의 집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부설의 계보협회와 록키산에 있는 기록보관소가 지난 10월 15일자 동아일보 제5면에 소개되었다. 계보협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족보를 수집하는 계획의 일부로 한국의 족보에 관한 기초조사를 마친바 있는데 동아일보의 소개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신문으로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었다.

계보협회로부터 발간된 「화강암 산중에」와 「은 세상 사람의 계보의 집」이란 한국어 원색 소책자를 갖고 있는 한국 선교부에서는 교회본부의 계보협회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수집을 원하는 사람은 선교부의 틈스 장로에게 연락을 바라고 있다.

곧 계보에 관한 영화도 배부 받도록 되어있는 한국 선교부에서는 지방부 단위의 가족기록서, 가계도와 같은 기초자료의 선전활동을 지시한 바 있었으며 머지않아 고무적인 활동지가 내려지리라고 한다.

록키山脈에 族譜굴

마이크로필름들이 들어있는 카드박스. 上下左右를 自動 조절할수 있는 電氣송장기가 가운데 비

모르몬敎서 後世敎徒위해

史記등 필름에 담아 收藏

韓國宣敎部도 收集착수

美國의 西部를 沿해 全世의 族譜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收藏하는 作業이 進行中이다. 「모르몬」敎의 試圖는 韓國人의 族譜를 蒐集하여 韓國人의 敎國宣敎師에 對한 功勞를 賞與하는 爲인이다. 「美」州의 「솔트 레이크」市에 本部를 設けて 世界族譜 收藏委員會(公同「모르몬」敎의 主體「社團」인 舊約「말라기」書 四章六節에 「그(엘리아)가 아비의

集積한 史記와 族譜의 필름을 保管하는 爲인이다. 七百餘개의 祠堂을 守護하고 있는 韓國人의 宗廟를 自動調節할수 있는 裝置를 完備하고 있다. 內給水施設, 完備하고 있다. 安(목)天災地震이나 戰爭 錄保管處로 考한다. 一九三八年에 시작된 世界族譜 收藏委員會의 主體「社團」인 舊約「말라기」書 四章六節에 「그(엘리아)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옮기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하리라.」고 했듯이 基督敎生以前祖上을 救助하기 위해 現「모르몬」敎徒들은 代理儀式執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死者에 대한 代理洗禮는 新約「고린도」前書 十五章二十九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러하여 死後의 儀式을 행해져 왔으나 後世 神學者들의 誤譯으로 「모르몬」敎에서는 世界各處에 神殿을 짓고 이 祖上들에 대한 洗禮를 行하고 있다. 이 系譜들은 代理儀式을 위해 死者의 代理儀式을 위해 死者의 系譜를 蒐集하는 爲인이다. 死者의 系譜를 蒐集하는 爲인이다. 死者의 系譜를 蒐集하는 爲인이다.

東洋國으로서 是는 世界各國에서 蒐集한 系譜를 韓國宣敎部에 提出한 爲인이다. 韓國宣敎部에서는 是를 蒐集하여 韓國人의 族譜를 蒐集하는 爲인이다. 韓國宣敎部에서는 是를 蒐集하여 韓國人의 族譜를 蒐集하는 爲인이다.

造主義의 影響을 받아 歷史의 時代相을 政治系譜에서 보다는 個人의 生活相에서 追求해 보려고 하고 있다. 韓國人의 族譜는 韓國人의 族譜와 斷絶의 歷史記述은 文藝과 文學기풍을 不過한 先祖들의 愛禮, 結婚의 式을 代行하는 子孫들이 神殿에 一百六十명씩 찾아온다고 한다. 族譜解에는 二百여개의 族譜解를 讀기와 대기실 막아실 등 이 行시 무로 제공되고 있다.

선교사 대회

선교사들의 연례행사의 하나인 선교사 대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주에서 있었다. 미국 군인배스 2대에 분승한 이들은 대전, 대구를 거쳐 경주에 도착하여 한국의 옛 문화와 접촉할 시간을 가졌었으며 각 개인에게 주어진 주제발표와 간증등으로 뜻있는 대회를 마쳤다.

올해의 목표였던 「회원 배가운동」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었던 선교사들은 지부교육의 효과적인 시행은 어떠한 방법보다도 효과적이었다고 그간의 관찰과 통계를 발표한 바 있었다. 선교사들의 방문과 함께 회원자의 선교사 의식을 강조했었던 이들의 발표는 곧 실천 되리라고.

